

تون도 사회봉사 사도직

필리핀의 젊은 직업인들, 교사들, 학생들과 가족들은 교황님의 제2차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 담화문에 관대한 마음으로 응답하십니다.

2019-1-24

누구든지 사회의 가장 구석진 곳에 사는 이들에게 다가가 자비의 육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8일, 제2차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과 필리핀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지정

한 젊은이들의 날을 맞아 수많은 젊은이들과 교사들,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이 필리핀 마닐라의 톤도 지역에서 사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돋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보며 ‘이분들 보다 많은 것을 가진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에서 인사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봉사자 케시아 듀아그(Keziah Duag)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시아 씨는 가정방문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 특히 62세 된 한 남성분과 80세 되신 그분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 기했습니다. 그는 크루즈선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다가 은퇴했고, 그 후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며 지역사회와 본당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끔 여행이나 호사스런 생활을 즐기고 싶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공동체를 돋는 즐거움에 비하면, 그에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듀아그씨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남성분은 한번 가족들에게 학대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받은 이 웃 여성이 병원 진료와 심리 상담을 받도록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그동안 의사를 만나 자신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Pakikipagkapwa - 제2차 세계 가난한 이들 의 날 기념 은총 가득한 봉사활동’이라 이름지어진 이 사도직 활동에는 총 200명이 넘는 봉사자가 참여했고, 그 중 의사•치과 의사가 두 팀으로 총 80명에 달했다. 이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며 2,000명 가량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교리교육이나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책 낭

독, 십대들을 대상으로 한 “이성친구 와의 관계” 강의, 부모님들을 위한 건강 및 구강위생 교육 등에 참여했습니다.

평신도 사도직

تون도 사회봉사 사도직은 가정 협력 보건 재단(FAMCOHSEF)라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주최되었습니다. 이곳은 1991년,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들이 당시 오푸스데이 단장이었던 복자 돈 알바로 델 포르티요의 질문에 응답하며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알바로 주교는 “여러분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라며 젊은이들의 사도적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자비의 희년이 끝나는 2016년 11월 20일 교황교서 <자비와 비참>을 통해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을 지정하셨습니다.

올해의 주제 성구는 “여기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시편 구절이었습니다(시편 34,7). 교황님은 “시편 작가의 이 말은 여러 방식으로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단순히 ‘가난한 이들’이라는 이름붙이는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tondo-sahoebongsa-sadojig/> (2026-1-20)